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Eternal Security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Eternal Security

구원의 영원한 보장

Eternal Security

By James W. Knox

© 2012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2.2.29.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립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com
표지사진	안성식 jetspeed@paran.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44-2

정가 5,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400주년 기념판(2011)”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제1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1 _10

제2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2 _25

제3장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1 _40

제4장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2 _51

제5장 구원의 목적1 _64

제6장 구원의 목적2 _78

제7장 은혜와 행위1 _94

제8장 은혜와 행위2 _105

부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 _118



역자 서문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앎을까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도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엡 2:8-9).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롬 5:18).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히 10:10).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치르지 않은 죄값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고전 15:3-4).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잃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등 상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요 6:37).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요 6:40).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 10:28-29).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 13:5).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요일 3:9).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고후 1:22, 엡 1:13, 엡 4:30)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달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 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

가 네 번에 걸쳐 강의한 Eternal Security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원래의 강의는 네 번이지만 편의를 위해 역자가 8개의 장으로 나누고 장의 끝에는 요약을 넣었습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1년 겨울에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b.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바르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헛된 걱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요 10:28-29)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

느니라.”(히 13:5)

저자와 역자와 독자의 구원을 영원히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 2월
역자 이우진



제1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1

칼빈주의는 이상한 교리입니다.¹ 칼빈주의는 5대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내용으로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둘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는 교리이며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한적 속죄”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앞의 네 강령은 구원받을 사람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으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믿는 것은 단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지만 말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가장 이상한 것은 마지막 강령입니다. 앞의 네 강령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의 다섯째 강령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선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¹ 칼빈주의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자의 <칼빈주의 비평>을 참고하기 바랍니다.-역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 받았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도 받았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해 놓고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교리이며 웨슬리가² 가르친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와 횃필드는³ 서로 다른 것을 믿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횃필드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선한 행위를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점을 보면 결국 두 사람은 같은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서신들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서신들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²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성직자였으나 후에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흔히 감리교회는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장로교회와 상반되는 교리를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선행이라는 점에서 칼빈주의나 감리교회의 교리나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³ 조지 횃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웨슬리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이였으나 교리적으로는 그와 완전히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횃필드는 대표적인 칼빈주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역주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그들이(즉,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한 조건”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든지 혹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죄를 지어야 그런지 혹은 몇 번이나 죄를 지어야 그런지 그 기준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의 말씀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몇 번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단든지 혹은 가장 큰 세 가지 죄를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모두 비성경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

라도 여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약 2:10)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든지 혹은 죄를 지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야 그런지 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 그런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 문제만 해결된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치러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까? 다시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위해 다시 회개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위한 또 다른 희생제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든지 아니면 죄값을 전혀 치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적이 없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죄값을 치러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한번만 거듭나는 것이지 거듭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피를 흘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다 이루었다”고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든지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으신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침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다시 구원받을 때에는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더니 다시 구원받을 때에는 침례가 필요 없다는 게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을 물(침례)

이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물침례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든지 아내를 구타하든지 마약을 팔든지 사탄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를 열거하고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언급하면서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죄는 자신들이 짓지 않는 죄이거나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짓는 죄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 자신들의 교회를 떠난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구원받자마자 다니던 교회를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까? 이것도 역시 쉬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3:14-15)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거짓 말을 하신 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태복음의 어느 구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순간이지만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생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영원하지 않은 생명으로 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진

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교회에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설교자들이 청중을 헐박하는 이유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희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일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헐박하는 것은 결코 누구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한다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선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여러분은 아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존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정죄를 받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어딘가로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죽었어요. 다음 명절 때 다시 살아 돌아올게요. 그런데 저는 다시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저는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회전문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의 문을 지나온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서 다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들어오는 입구만 있고 나가는 출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한동안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한동안 목마르지 않다가 나중에 목마르게 되리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옥에 있던 부자가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한방울의 물이었습니다. 그는 왜 지옥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중단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옥에서 목마를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저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청중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야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러한 협박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영적 성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지식이나 교리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렸습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 어딘가를 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끔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청중이 헌신하게끔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겁을 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십일조를 열심히 내게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 청중을 협박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청중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협박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청중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무엇인가를 드러야만 받을 수 있는 상호주의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8:29)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하는데도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완전히 망각한 주장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 그런 나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낱 개인의 기준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텔에서 쫓겨나는 투숙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셋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께로부터 쫓겨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선행이 없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쫓아내려고 해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을 쫓아내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이상이 달린 일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한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관한 일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은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영원히, 혹시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요 6:40) 여러분은 아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으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⁴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 6:47)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원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⁴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육체도 죽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만일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역주

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 약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서신들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약 2: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든지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않으신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요 3:14-16).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교회에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가 청중을 협박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3:36).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5:24).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6:35).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눅 16장 참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헌신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과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로 왔다면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요 6:37).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요 6:40).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요 6:47).



제2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약속2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검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염소인 것보다는 낫습니다. 비록 검은 색이더라도 양이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만일 그들이 나를 따르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양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흉내 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며 자동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양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주님을 믿고 양이 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주님의 손에서 뛰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혹은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닭이 빨리 달린다고 해서 깃털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닭이 달린다고 해서 깃털이 빠진다면 잡고 나서 손질을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깃털은 닭의 신체조직입니다. 깃털도 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깃털이 몸통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여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뛰어 내리거나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강제로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요 10:29)

“아무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는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의 값을 치르고 계신 것도 아니며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쉬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백하지 않은 죄가 방해가 될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⁵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위를 바

⁵ 물론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리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이미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에 대한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저자의 <세대주의 재고찰> “제7장 지위와 상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역주

꾸지는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지 않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실하신 분입니까? 주님께서서는 의로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7:26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27절)

이 구절의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중보만 해 주실 뿐 다시 희생물을 드리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신을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희생물을 드리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이미 드린 희생물에 대해 상기시켜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게 좋기는 하지만 또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 다녀 와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죽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또 다른 희생물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값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나 누가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으며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히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기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드신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 9:11-12)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고 두 번 다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치르신 한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은 구속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속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구속 받았다면 영원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값 주시고 사셨기에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왜

나하면 주님의 구속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가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것을 교리로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13-14절) 저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 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15절) 저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도 받았습니 다. 따라서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히 10:1-2)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생물을 드린 것입니

⁶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역주

까?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드린 희생물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그들은 반복적으로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3-4절)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구약 시대에 드리던 희생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5-6절) 성경은 황소와 염소 같은 희생물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희생물들은 절대로 인간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7-8절)

황소와 염소 같은 희생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마 3:17)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8:29)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9절) 첫째 것과 둘째 것은 모두 희생물을 의미합니다. 첫째 것은 황소와 염소이며 둘째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황소와 염소로 드리던 제사를 주님의 몸과 피가 대신한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10절) “단 한 번 영원히(once for all)”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11-14절)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비평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분파를 이루고 있다는 사람들이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희생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제사(미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성모독적인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피를 흘리게 하겠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이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고전 11:23-29)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속 외에 또 다른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대도 다른 희생물이 또 필요하고 다른 대속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매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제가 진리를 말해줄까요? 때

주 헛되이 반복하는 무슨 무슨 신경이 진리를 알게 해 줄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제가 떼는 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과자 조각에 불과합니다. 사제가 떼는 빵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매주 희생을 치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빵 조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를 보고 다른 종교를 나쁘게 얘기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다시 희생을 치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죄값은 모두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헐박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장 강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3:5)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6절) 만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 한번만 해보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해 보는 사람이 실패할 것을 걱정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격려를 받아야 두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를 읽고 책을 읽는 것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공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버지가 던지는 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몸이 굳어서 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게 읽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책을 읽는 것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일을 처음 할 때에 실수를 하는 것을 누군가 용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글을 배워서 처음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틀리게 읽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사라면 한 글자를 틀리게 읽었다고 해서 아이를 바로 중지시키고 집에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계속 격려하면서 아이가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게 할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으니 다시 읽어 보렴.” 그

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의 죄라도 지으면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단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번만 잘못해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번의 잘못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아무도 주님을 위해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면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단 한번의 죄나 잘못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잘못 행하고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이가 다시 시도해 보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Lord) 이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Master)으로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쫓아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줍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의 구원을 빼앗아 가시거나 내쫓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한편 이고 주님의 가족이며 주님의 몸이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후회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후회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했던 일들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많이 부족했을 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으로서의 온전함이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서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지금 했던 일이 한없이 부족하고 어쩌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

도 바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가 자신의 7살짜리 자녀이며, 27살짜리 자녀인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자격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요 약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자동적으로 따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요 10:28).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요 10:28-29).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7:25).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히 7:25-27). 왜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중보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단 한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히 9:11-12).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영원한 상속 유업과 함께 받았습니다(히 9:13-15).

구약 시대에 드리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히 10:1-4).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황소와 염소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히 10:5-8, 마 3:17, 요 8:29).

주님의 대속은 단 한번에 영원히 완성된 것입니다(히 10:10-14). 예수 그

리스도께서 치르신 대속 외에 또 다른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장 강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히 13:5).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히 13:6).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에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 한번의 죄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결국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즉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줍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자격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제3장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1

신명기 31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들을 말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날 백이십 세니라.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겠고 주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신 31:1-2)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거저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막대기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출 17:6).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민 20:8-11). 그러나 모세는 화를 내며 반석을 내려 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내려 친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인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나 오히려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백이십 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그의 생을 끝내셨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모세가 죽은지 1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옛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

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때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마 17:1-3)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기본적인 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값을 치러주지 않으신 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삼중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혼과 몸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 육신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영원히 정죄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혼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을 향한 징계와 혼을 향한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신명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히 11장 참고). 그러나 그의 몸(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

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로 인해 주님의 의해 육신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몸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육신에 내어주어 육신대로 사는 것을 택한다면 저는 제 몸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경우여라도 저의 혼으로 짓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짓값을 지불하셨고 저의 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자신의 짓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코 혼으로는 짓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동일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배운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누군가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럴듯한 말로 속이면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창 1:26-27)

“우리가” 몇 분의 하나님께서 계신가요?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어가 복수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1+1+1은 3이지만 1x1x1은 1입니다.

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별 맞추기 게임(Guess that gender ga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별을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이야 어떻게 든 간에 사람은 남자가 아니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자”고 하시고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와 같은 사람의 육신적인 외형을 의미한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사람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면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 5:23)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개인은 한 사람이지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없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 하게 하겠느냐?”(마 16:26)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혼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육체(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혼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문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약 5:19-20)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한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몸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 문제를 해결해도 저의 몸은 여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 10:39)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은사주의자가 아닌지 아십니까? 저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 보다는 누군가의 혼이 구원받게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 지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7-23)

구원의 결과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22절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24-25절)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이 마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모세의 육체가 어디에 묻혔건 상관없이 그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은 썩어서 다 쓰러져 가는 풀로 만든 초가집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혼은 바짝 말라 먼지가 될 풀 같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롬 8:22-23a)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장

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23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혼은 결코 정죄나 징계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이 왜 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영이 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쪽(혼)은 구원받았고 다른 쪽(몸)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혼)은 하나님께 속했고 다른 쪽(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드리고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육신에게 내어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존재는 한쪽은 옳은 쪽에 속해 있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엡 1:7)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

하게 하시느니라.”(13-14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의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는 저의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 오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봉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육신의 몸은 제 혼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의 혼을 봉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몸이 변화 받을 그날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은 바로 몸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의 혼을 육신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너희는 모든 쓴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

신 것 같이 하라.”(엡 4:25-29,31-32) 여기서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30절) 바울은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짓을 하면 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러한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혼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날은 바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술한 문제에 빠지게 했던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과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몸을 위한 값도 이미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은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값은 치르셨지만 아직 가져가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요 약

하나님께서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신 31:1-2). 왜냐하면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00년이 지난 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 17:1-3).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으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코 혼으로 죄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창 1:26-27, 살전 5:23).

사람은 몸과 혼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마 16:26, 약 5:19-20). 예수님을 믿는 순간 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히 10:39, 벰전 1:17-23). 성경은 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롬 8:22-23).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벰전 1:24-25).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몸이 구속 받을 때까지 우리를 봉인해 주셨습니다(엡 1:7, 13-14).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4:25-29, 31-32).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엡 4:30).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과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제4장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2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문장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이것은 같은 문장입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만큼 선한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아닌지를 인간의 죄나 선행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각자 개인 안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 4:16)

여러분의 “겉사람”이 왜 썩어 없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죄의 샅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롬 6:23). 여러분의 육신은 왜 죽게 되는 걸까요? 육체의 죽음은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든 아니든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죽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삶은 사망이나...”**(롬 6:23a)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미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새것처럼 유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썩음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몸 안에 있는 혼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쪽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한 쪽은 썩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십니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2-24)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한 사람(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겉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은 피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 옛사람이 죄의

법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거기에 비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참을 수 없어. 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내어주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악하건 말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 자신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몸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요일 3:9)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은 둘째 출생을 했습니까? 그 결과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왜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

남에게서 태어난 저는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씨지 아니할 씨에서 나온 저는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저를 거듭나게 한 이 씨는 성령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씨는 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씨를 썩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저를 지켜주고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줍니다.

“그분의 씨” 이 씨는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씨가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 구속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썩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을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으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요한일서 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몸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

여러분이 병 안에 씨앗을 담아 두고 뚜껑을 닫고 그것을 봉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흙 속에 있건 오물 속에 있건 그 병의 겉면은 더러워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병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고후 1:22)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엡 1:13)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저를 인치셨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은 처음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 인쳐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은 누구도 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강력합니다. 봉인된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 상태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흙 밭에서 구르고 오물에서 구르고 먼지 속에서 굴러도,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깨끗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언젠가 낡고 비참한 육신의 몸인 겉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을 꼬집어 내어

새로운 몸 안에 넣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대환난 때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주로 인용하는 구절들은 일반서신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교만해 지고 교회에는 분열이 올 뿐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일반서신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시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벧후 2:6)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7절)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롯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이라는 말에는 **“의롭지 않은”**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의로우면 의로운 것입니다.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딸들은 누구와 동침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8절) 롯의 의로운 혼이 왜 괴로웠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의로운 혼은 괴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나누는 불의한

대화에 동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불의한 행위에 동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이” 베드로는 창세기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롯은 동성연애자들이 사는 동네의 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롯에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롯은 차라리 자기 딸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창 19 장). 롯이 동성연애자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창 19: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롯의 혼은 의로운 혼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형제라 부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는 멸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멸망할 도시 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9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the godly)”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롯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던

경건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롯의 혼은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롯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롯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않은 동성연애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딸들을 통해 아들들이면서 손자들인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불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의한 행위가 그의 의로운 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롯의 삶을 보십시오. 추악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롯 같이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 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3-8)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혼은 의로운 혼이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하여 아들들(손자들)을 낳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작은” 죄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자신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끔찍한” 죄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뭣이 지은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뭣도 여러분이 지은 죄는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TV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없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새치기를 하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도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어떻게 포장을 해도 여전히 죄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혼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범하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어줘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을 상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하지만 교제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을 치르고 구원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고전 5:1-3)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5절)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를 사탄에게 데리고 가서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복해서 행하며 교회의 권면도 전혀 듣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의 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

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받을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은 어떠한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의 몸에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나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몸으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몸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혼은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죄나 선행과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어떠한 죄나 선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육체를 입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의 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혼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과 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점

점 새로워지는 사람과 낡아지는 사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의 혼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약

구원은 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고후 4:16, 롬 7:22-24).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혼은 피로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 옛사람이 죄의 법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엡 4:30, 롬 8:22-23, 엡 1:13).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요일 3:9).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고후 1:22, 살전 5:23)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저를 인치셨기 때문에 저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십니다(벧후 2:6-9). 롯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롬 4:3-8).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혼은 의로운 혼이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죄가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어줘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괴로워할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을 상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하지만 교제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육체는 징계에 내어주고 멸할 수 있어도 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고전 5:1-5).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의 혼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5장 구원의 목적1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재단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듭난 경험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 안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 받기는커녕 순간적인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에 구원을 잃어버렸던지 혹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고전 6:9)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고 한 것은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도독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

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10-11 절)

여기서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있었으나…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거룩히 구별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취하거나 욕하거나 착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짓을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지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 같지만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비난을 합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이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그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우리

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10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8-9을 읽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며 그 가운데서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며 걷기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

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의 죄도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던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에 속한 본성과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본능과 거기에 속한 정욕이 무엇인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출생(첫째 출생)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둘째 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적인 출생이 육신적인 열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도 영적인 열망을 갖게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육신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육신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출생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열망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은 단 한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를 닮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 년이나, 십 년이나, 이십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셔대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금을 떼어 먹으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장 몰래 돈을 빼돌리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든 이러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딤후 2:11)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

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3절)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읽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만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계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12절)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되어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야 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학생이라고 하면서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면서 교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른다면 이상한 학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한 적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까지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합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만 급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4절) 14절은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선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전적으로 자신을 드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 치고 가족을 학대하고 나쁜 짓이나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의 구원도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게 하기 위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영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것도 간증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간증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앎을 까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

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욕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욕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갈 5:16-17)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읽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부터 짓던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 죄의 욕망과 싸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척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인 양 가장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척해도 실제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를 지으려고 하니 제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저의 욕신의 정욕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욕신과 싸움을 시작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새사람입니다. 그 새사람이 옛사람과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겨워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적 갈등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전혀 갈등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도 전혀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계속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독려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했노라. 너희 몸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 주어라.”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를 대적하여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과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18-23절)

다음 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24절)

한 사람이 자신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묻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나요?” 그러자 그는 “저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겠는데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그런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계속해서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

제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정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고 육신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냐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을 죄에 내어주거나 용납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그 통제 아래 둔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비록 때로는 죄에게 패배할지라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심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짓던 죄를 모두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정당화하면서 즐길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투쟁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불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닳아갈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카페를 차려놓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내에 술집을 차리지 않은 것이 다행일 지경입니다. 아마 나중에는 불신자들을 위한 “술집 교회”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고 술도 마시라고 광고할지도 모

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화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고 관심을 가지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배우나 가수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특정한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이 아닌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

게 되면 그분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든지,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큰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며 구원을 받았고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엄마랑 아빠가 가고 하니깐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천 문화”를 즐길 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만의 오디오를 구입하고 TV를 구입하고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면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거둬낸 적도 없고 구원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받은 영원한 구원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도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무리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자신도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만 한다면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자신의 삶이 다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혼과 삶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를 짓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요 약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고전 6:9-11).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엡 2:8-9).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엡 2:10).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에 속한 본성과 본능과 열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이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세상에 속한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딤후 2:11-14).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으며,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갈 5:16-23).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24절). 계속해서 느낌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하려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6장 구원의 목적2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다.”(롬 5: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조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을 취소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8 말씀의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8) 성경은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롬 5:10) 이것은 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과거도 책임져 주셨고 현재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9절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롬 5:9)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8절) 현재 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며(10절)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9절).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

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면, 성경은 그 피가 여러분을 진노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증보하시느니라.”**(롬 8:3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증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마귀조차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마귀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한 어떠한 고소장도 하나님 앞에 제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가 고소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아예 듣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별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롬 8:35-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바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롬 8:39).

여러분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

십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형제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터키에서 무슬림들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의 잔혹한 핍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끊어지고 머리가 몸으로부터 끊어질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병이 낫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으로 분류된 민족이 나옵니다(마 25:31-43).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칭찬하시자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마 25: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해 준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40절).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의 형제들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요? 주님의 형제들도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투옥되고 병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것입니다.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롬 8:38-39)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상의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저는 아이들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유

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과 영원을 통틀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12:6).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부모자식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39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일 우리 스스로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스스로 창조된 사람이나?”고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떠한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만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단 한 번의 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쁜 죄인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속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 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마 22:37). 둘째로 큰 명령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마 22:39). 만일 여러분이 자신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째로 큰 명령을 범한 것입니다.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큰 명령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일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이 유지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명령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욕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보다 작은 죄입니다. 그 어떤 죄도 이 두 명령을 범하는 것보다는 작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큰 두 명령을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행위로 유지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전 1:6-8)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딤후 1:2).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요일 5:20). 따라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취해 가실 수 없습니다. 만일 도로 가져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면 아시는 것이지 다시 말을 바꿔서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견고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갈 3:1-2)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갈 3:3)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나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면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은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

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 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막 4:35-41)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사이 폭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이상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본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아내와 아이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모퉁이를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화재로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린다고 해서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 4:30) 지난 시

간에 공부한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봉인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혼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까지 성령님의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7:1). 성경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주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창 7:16). 주님께서 방주를 봉인하신 것입니다. 사십일 밤낮으로 비가 와서 높은 산들마저 물로 완전히 덮이고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안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육지가 생기자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사이 좋게 즐겁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다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주가 모든 시설을 갖춘 여객선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수로 멸망하지 않도록 방주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자동항법장치도 없었고 키도 없었고 돛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 1:6)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해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지는 것입니다(고후 4:16).

하나님께서 1976년 12월 17일 아침에 저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지겹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 전에 구원받았지만 마치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이십 년 이상 지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에 관해서는 그러한 연수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에는 더 이상 날이나 달이나 년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제 구원받은 것 같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계와 달력을 벗어나 영원에 받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할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시다.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서는 아무도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는데 거울부터 찾으면서 머리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딤후 2:11-13)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라는 은사주의 목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어떤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오랄 로버츠는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매님에게 만일 그녀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결코 병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50세가 되었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오랄 로버츠의 특별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그에게 수백 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오랄 로버츠는 그녀에게 만일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병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랄 로버츠의 말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오랄 로버츠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걸리더라도 나올 것이라

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몸속에 있는 암 덩어리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은사주의 목사들을 너무 비판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랄 로버츠는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치사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구원받은 여자를 그녀가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쫓아버리셨으며 그녀의 구원을 도로 가져가셨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쫓겨났고 영원한 생명도 빼앗기고 말았다고 생각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늘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보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머, 저는 제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마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딸아, 너는 내가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 줄 알고 저도 믿음을 버렸었거든요.”

“그래? 누가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냐, 아니면 내가 구원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더냐?”

“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자매님이 죽기 전에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믿음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왜

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녀를 오래 전에 이미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입
니다. 비록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을 부인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
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
다. “주님, 저는 주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사 40:15).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도 휘장을 걷는 것처럼 걷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빼앗을 수 없
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나가는 사
람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 분께 분명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민족들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여기고 우주를 휘장처럼 펼칠 수 있는 손이라
면 그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
에서 빠져나가려면 아주 긴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만년이 지
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손가락 한 마디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시
는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자
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커녕 일

시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롬 5:1).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8절) 현재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며(10절)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입니다(9절).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증보해주고 계십니다(롬 8:34-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롬 8:39).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부자가 된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마 25:39-40).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마 22:37,39). 이 명령을 어겨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고전 1:6-8).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받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갈 3:1-3).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막 4:35-41).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십니다(엡 4:30).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날까지 성령님의 봉인은 풀리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빌 1:6).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딤후 2:11-13).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7장 은혜와 행위1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십오 년 이상을 해도 모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성경을 믿는다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믿어야 합니다. 만일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행위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행위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놓고 행위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거나 징계하시거나 판단하실 죄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면 어떠한 죄값도 다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건 신앙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건 상관없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사주의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마치 자신들의 구원이 유지되는 이유가 자신들의

잘난 신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주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헐박하거나 보상을 제안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요 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가 없거나 징계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헐박해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결국 육신적인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1:7)

다음 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인 체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면 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일한 업적을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에 대해 너무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6:15).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넘치게 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영화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러한 생각을 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록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탄도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로 인해 그를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섬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나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유지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신의 썩은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이러한 죄악 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히 의롭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구절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약 2:10-11)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 하나만을 지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평생 매일 매 순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깔볼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중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모두 하늘나라에 갈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뿐이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혹은 어떤 종교가 더 좋은 종교인지를 논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25년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

은 후에 저는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롬 7:18)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스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신은 그만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심지어 성경(로마서)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19-20절)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던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개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육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아담

의 성품과 죄의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곳에는 가지 않으며 자신의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짓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비교해 보고는 자신은 그만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노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21-25절)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산 날이 없습니다. 필리핀이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퍼트 머독은 새국제역본(NIV)을 출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루퍼트 머독은 새국제역본만 출간한 것이 아니라 포르노잡지도 출간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포르노잡지를 가장 많이 찍어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포르노잡지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독은 폭스 뉴스의 소유자이

기도 합니다. 아마 폭스 뉴스는 본 적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독은 새국제역본과 포르노잡지를 찍어내고 동시에 폭스 뉴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경한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국제역본이나 포르노잡지를 보지 않아도 폭스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그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종교가 매우 잘못되었으며 비성경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넬슨 출판사는 뉴킹제임스성경을 출간하므로 성경을 번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회 신부의 영향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라디오 방송국의 사회자가 로마 천주교 사제이거나 예수회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송을 들으면 그들의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은 무슬림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슬림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거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차에 기름을 넣으면 이슬람을 믿는 아랍에 돈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차에 기름을 넣고 가면 여러분은 아랍과 이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배달을 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직접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자신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하는 사람이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달료에는 기름값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름값으로 지불한 돈은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슬람을 전파하는

무슬림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은 어떻습니까? 그 세금이 온전히 옳은 일에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교육에도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 요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이 진화론을 교육하는 교육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직간접적으로 하루 종일 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의 일부입니다. 신비의 바빌론만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 신비의 바빌론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경기를 시청하는 것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경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경기를 지원하는 가장 큰 세력은 주류업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그 경기를 통해 광고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운동경기를 시청하면 주류업자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폭스 뉴스를 시청하고 차에 기름을 넣고 세금을 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운동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진화론 교육을 지원하고 무슬림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포르노잡지를 출간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거나 혹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죄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며 오직 다른 사람이 짓는 죄만 죄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헤리포터는 마법이 나오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동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똑같이 마법을 사용해도 마녀가 아닌 요정이 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 헤리포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잘못된 소설이라면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 약

구원을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행위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면 어떠한 죄값도 다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

람들을 헐박하거나 보상을 제안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요 14:15).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요일 1:7-8). 구원받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살전 5:17, 약 2:10-11).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다른 죄를 짓고 타락한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타락했습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유지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8장 은혜와 행위2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이나 몰몬교인들이나 은사 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롬 4:1-2)

여러분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3-5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앉아서 저의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저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원하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기 원한다고?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내가 널 왜 도와줘야 하느냐?”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다른 것은 없느냐?”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오, 꽤 좋은 소식이구나.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느냐?”

“아, 음,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흠, 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구나. 나에게 내세울 만한 다른 것은 없느냐?”

“저는 어제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와우!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노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더할 만한 것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잘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혀 빚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께 뭘 좀 구하겠습니다. 어제 같으면 이런 기도는 하지도 못했겠지만 오늘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오늘은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죄를 많이 지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경배를 드릴 수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날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감동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위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빛을 진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빛을 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빛을 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께 빛을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 섬김으로 주님께 빛진 것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영원히 주님의 소

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6-8절)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받기 위해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 카트에 물건을 싣고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대신 물건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계산하려고 하자 점원은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한번 값이 지불된 물건의 값을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워서 마트에 가서 청소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물건 값을 지불해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았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고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죄에 대한 어떠한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죄값도 치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저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

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벤전 2:24)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5:21)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것도 없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엡 1:1-3)

오늘날 기독교는 은사주의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거나 죽는다고 해서 그제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고 해도 저는 병 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지만 영적인 복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구원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밖으로 드러낼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다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자신이 받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즐기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9:6).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람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인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영적인 복을 무효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겁을 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겁을 주고 협박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협박해서 교회에 남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4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제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그 사실을 믿

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저는 거룩할 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는 흠이 없을 때도 있고 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분 앞에 있는 저는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않을지 걱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예정된 것입니까? 돌이 아닌 빵을 받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뱀이 아닌 생선을 받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제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전도지를 많이 돌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짓던 죄를 그만둔다든지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미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께 상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불로써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행한 모든 일은 불에 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 불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은 조금도 남지 않고 모조리 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몸안에 갇혀 있는 비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의 모든 짓값은 지불되었고 다시는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100번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200번 구속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1000

번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2000번 용서해 주고도 남는 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다시 1000번의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를 덮을 은혜가 하나님께는 넘치게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8-12절)

우리는 이미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만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숨쉬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설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하지만 결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호의를 입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나사렛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라는 성을 가진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목사였고 오래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녀도 여든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강대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십 년이 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발, 제발 저의 구원을 취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그 자매님은 오십 년 이상 주님을 섬겼지만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녀는 수십 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단 일분도 자신이 받은 구원 안에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평안도 얻지 못했고 어떤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자매님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었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영원히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의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가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입니다.

요 약

여러분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잘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대단

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빚진 게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엡 2:8-9).

성경은 단 한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엡 1:1-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9:6).

어떤 선행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엡 1:6).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다시는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Dr. Ford Porter

저는 지금 당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지 슬픔을 맞볼지는 당신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그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롬 6:23)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 9: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매우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벌을 받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예수님께서서는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에 있기 때문이니라.”(레 17:11)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히 9:22)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 5:8)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무관하게 저의 죄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 17:30)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당신이 생각을 바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0-31에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 1:1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

리라”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13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으면 당신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의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가 없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 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당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반드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모든 걸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당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매일 해야 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세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당신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딤후 1:8)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전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 10:32)**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내일은 늦으리	홍성울	56	2000
3	하나님의 경고	홍성울	116	4000
4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6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7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8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9	행복한 그리스도인	홍성울	40	1000
10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11	깊이 생각하라	홍성울	28	1000
12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13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4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5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6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7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8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9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20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21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22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23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4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5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6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7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8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9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30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1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33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4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5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6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7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8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9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40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4	1000
6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7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16종과 소책자 24종 등 40종의 도서를 총 8만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한 권 당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2년 2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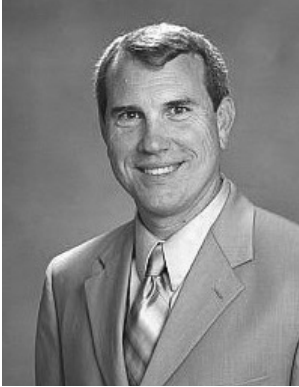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